

지하철 난연 내장재 교체 본격화!

건교부, 2005년까지 전동차 4208량 지원 ... 선진국 수준의 기준 적용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도시철도 차량의 내장재가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불연재로 전면 교체된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 부산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화재예방 등 지하철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와 지방 도시철도 전동차 4208량의 내장재를 2005년까지 불연성으로 모두 교체키로 했다.

교체 대상은 서울지하철 1696량, 서울도시철도 1564량, 부산지하철 696량, 인천지하철 200량, 광주지하철 52량 등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03년 중 서울지하철 472량, 서울도시철도 436량, 부산지하철 194량, 인천지하철 56량, 광주지하철 52량을 우선 교체키로 하고 국고 590억7000만원과 지방비 807억6000만원 등 1398억3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내장판, 단열재, 의자, 바닥재, 통로 연결막 등 교체될 내장재에 NFPA(미국연방 화재 기준) 등 선진국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3/08/11>